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글 | 박철주

그림 | 지동환

글 | 박철주

그림 | 지동환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오늘은 친구들이랑 직업 체험 왔어요. 체험장 안에는 요리사, 아나운서, 기자, 의사, 은행원 등 직업 체험실이 아주 많았어요.



“난 빵 만들기 체험할래.” 체험실을 둘러보던 소윤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하람이는 기자, 빵을 좋아하는 시우는 제빵사, 민준이는
플로리스트를 체험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과학 수사대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체험 순서를 정했어요.



먼저 플로리스트가 되어 보기로
했어요. 플로리스트는 꽃으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한대요. 우리는 각자 꽃을
골라 부케를 만들었어요. 꽃마다
다른 특성도 알아야 하고,
꽃가위로 자르려니 손도
아팠어요.



이번엔 제빵사가 되어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구웠어요. 고소한 빵 냄새도 정말 좋고 내가 만든 빵도 맛있었어요. 제빵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빵을 반죽하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빵을 굽는대요.



빵 냄새를 푹푹 풍기며 과학
수사대 체험실로 갔어요.
약품으로 범인이 남긴 지문이란
발자국 같은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냥 체험만 하는 건데도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무서웠어요.



다음은 응급 의학과 의사 체험을 했어요. 심폐 소생술을 배운 뒤, 구급차를 타고 응급 환자를 구하러 갔어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하고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를 했지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려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티브이 기자 체험을 하러 갔어요. 사건 사고를
취재해서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해 봤어요. 파란 화면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서 날씨도 전해 주고요. 우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요.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얘기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